

# 러시아 대학의 교양교육 현황과 과제



조혜경  
대구대학교 기초교육대학 창조융합학부 교수

## I. 들어가며

주지하다시피 교양교육의 기원은 고대 로마에서 시작된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인 키케로(Marcus Tullius Cicero, BC106-43)는 ‘후마니타스(Humanitas)’, 즉 ‘인간적인 것’의 개념을 강조하고 이후 이 개념은 인간을 더욱 인간답게 만드는 교육과 문화 전반을 가리키게 되었다. 키케로의 개념은 소수의 엘리트층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시민을 위한 것으로 삶의 진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며 신의 세계보다는 세속적인 인간의 삶을 긍정하고 주목한다. 뿐만 아니라 이 개념 안에는 인간이 발견해야 할 진리가 아니라 인간이 성찰적으로 만들어가야 할 진리

추구를 그 목적으로 한다.

고대 교양의 개념이 인간 중심, 현실적, 능동적인 인간의 태도를 강조하였다면 중세의 교양의 개념은 특정 계층, 즉 성직자들의 교육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과 고대의 자유 학예(Ars Liberalis)<sup>1)</sup> 개념의 발전으로 이루어졌으며 이 시기 주목할 것은 교육 방식이다. 즉 이 시기 강의는 독해, 주석, 세미나, 토론 등의 방식을 취하였고 그 방법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대학교육에서 유효하게 사용되어지고 있다.

한편 르네상스 시기 교양은 자유학부를 중심으로 한 교육으로서 전공교과로 진입하기 이전 실시되던 교육을 일컫는다. 이는 고대의 전통을 부활시키

1 이는 3학(문법, 수사학, 변증론)과 4과(산술, 기하, 음악, 천문학)를 가리킨다. 이는 신학, 법학, 의학과 같은 직업교육에 대비되는 학문이다.

고 인간적인 것에 대한 탐구와 인문교양 교육의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이 시기 교양교육은 고전어에 치중하여 언어교육의 형식을 띠게 되었고 더 나아가 고전어를 숭배하고 자국어(러시아어)를 경시하면서 일반 평민들에 대한 엘리트들의 우월감을 내세우기도 하였다.

지금까지 위에서 교양교육의 개념이 유럽을 중심으로 통시적으로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여기서 드는 의문점은 유라시아 대륙에 걸쳐 있는 러시아의 교양교육이 과연 유럽식의 행보를 거쳤는지 하는 점이다. 이러한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러시아 문화가 과연 유럽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았는지를 먼저 살펴야 할 것이다. 행정 단위로서 고대 러시아의 시작을 알리는 공국<sup>2)</sup>은 지금 러시아의 수도인 모스크바가 아닌 현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예프를 중심으로 형성되었고 키예프는 그리스 정교를 수용(988년)하여 러시아 정교로 발전시켰다. 따라서 고대 러시아 교육은 종교적인 색채를 띠게 되며 보편 교육보다는 신학자 혹은 수도사를 양성하기 위한 수도원 중심의 종교교육이 행해졌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인간과 현실 중심의 교육이 아닌 신 중심의 교육이 고대 러시아 교육의 시작이라 말할 수 있다. 게다가 고대 러시아는 13세기부터 15세기까지 250여년 간 몽골 따타르의 지배를 받으며 서구 문화와 완전히 단절되어 서구의 르네상스를 맞볼 수 없었다. 따라서 교육 또한 과거 고대 러시아의 저급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였고 이러한 경향은 15-16세기까지 지속된다. 그러다 18세기 러시아는 표트르 대제의 서구화 정책에 힘입어 수도를 페테르

부르크(St. Petersburg)로 옮기고 서구식의 문화와 교육을 지향하게 되는데 이는 일반 서민이 아닌 상류층을 대상으로 한 내용이 대부분이었고 고대 로마나 서구 르네상스 정신과는 거리가 먼 위로부터의 개혁이라 볼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위로부터의 개혁이 19세기 일부 귀족층들에게 반발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이다. 프랑스 자유주의 사상을 섭렵한 러시아 귀족 지식인들이 입헌정과 농노제 폐지를 주장하였고 이는 이후 19세기 러시아 사상가와 철학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다. 1861년 농노해방 이후에도 러시아의 인본주의와 자유주의는 황제에 의해 위협한 것으로 간주되었으며 아이러니하게도 소비에트 혁명 이후에도 자유교육(General Education)은 소비에트 사회 건설과 경제 부흥을 위한 기능인 양성을 위해 왜곡되어 행해졌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소비에트 이데올로기 교육이 교양교육이라는 왜곡된 형태를 띠게 된 것이다. 한편 교양교육은 전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졌다. 구소련의 교육제도에서는 일반교육기관의 모든 학생들이 인문계열 혹은 이공계열 구분 없이 모국어, 수학, 역사, 지리, 화학, 물리, 생물 등 다양한 기본 교과들을 철저히 이수하도록 되어 있었다. 위에서 간략하게 살펴본 20세기까지의 러시아에서의 교육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은 철저히 위에서부터 기획되어 시행되기에 국가 이데올로기에 종속된다.

둘째, 교육은 일부 지식인, 특히 프랑스와 독일 유학을 통해

2 공국은 공후(Prince)가 다스리는 국가로서 오늘날의 국가 개념과는 다르다. 고대 러시아에는 여러 공국들이 공후를 중심으로 자리잡고 있었다.

서구 사상을 접한 지식인들의 전유물이 되며 계층 간의 분열의 원인이 된다.

셋째, 1917년 혁명 이후 소비에트 정권에서의 교양교육은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이데올로기 교육이 강조되고 전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진다.

위의 특징들을 고려할 때 러시아의 교양교육은 직업교육 혹은 전문교육에 비해 상당히 경시되어 왔으며 일부 귀족 계층 혹은 엘리트 계층만의 전유물로 여겨지거나 단지 수준 높은 외국의 문물을 훑어내고 외국어를 구사하는 정도로 치부되다가 소비에트 정권에서는 사회주의 건설 이데올로기 교육으로 전락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다 2000년 이후 러시아는 향후 10여년에 걸친 교육 현대화를 계획하며 개인, 사회, 국가의 당면한 요구와 장기적 발전에 기초해 교육의 질을 보장하며 교육구조 개혁과 교육내용 및 질을 향상시킬 것을 목표로 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일반교육, 인문사회, 인문언어, 자연과학, 물리수학, 공업 등의 전문화된 교육을 심화교육<sup>3)</sup>의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러시아 교양교육의 특징은 하향식(Top down)의 교양교육 시스템, 인문학에 대한 강조, 교수법(토론식 수업과 세미나)이라 생각한다. 러시아에서 교양교육의 설계와 이행의 주체는 국가였으며 교육에 대한 책임과 모든 국민들에게 균등한 교육기회 부여

또한 국가가 행하는 시스템을 통한 것이었으며 이러한 시스템이 효과를 본 것이 바로 아이러니하게도 교양교육 분야라 생각한다.

## II. 러시아 교양 교육의 체계와 특성<sup>4)</sup>

러시아의 초·중·고 교육과정은 1985년부터 11학년으로 구성되었다.<sup>5)</sup> 따라서 러시아 학생들은 6세에 학교에 입학하여 17세가 되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된다. 특이한 점은 초등학교 때부터 기초학문을 의무적으로 편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러시아어, 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수학, 기술 등이 편성되고 이 중에서 사회과학 영역 안에는 외국어, 러시아사, 세계사, 경제 및 사회 지리, 법학, 정치학, 경제학이 포함되는데 특이한 점은 외국어 과목이 사회과학 안에 포함된다는 점이다. 이는 언어로서의 외국어뿐만 아니라 그 언어를 사용하는 국가에 관한 사회, 문화 등 지역학과 문화 영역까지 사회과학적인 시선으로 접근하려는 의도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러시아 초·중·고 교육의 특징은 필수 커리큘럼의 기초 수준뿐만 아니라 고급 수준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잘 형성되어 있다는 점에 있다. 예를 들어 외국어, 수학, 물리 등과 같은 선택 과목에서 고급 과정을 제공하는 학교가 있으며, 미술,

3 심화교육은 기존의 획일화된 교육을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 및 미래의 진로에 적합한 방향으로 개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교육이다. 이 교육은 2004년 9월 1일부터 시작되어 2006년에는 10학년과 11학년에 전반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라고 한다. 신현숙, “현대 러시아의 교육과정과 교과서 개혁정책”, 『비교교육연구』 14권 1호, 197쪽.

4 <http://en.russia.edu.ru/edu/description/sysovr/910/> 검색일 2015.5.15

5 초등(Primary general education) 4년, 중등(Basic general education) 5년, 고등(Secondary general education) 2년 과정이다. 이 중 초·중등과정까지만 의무교육이다. 그런데 러시아는 강한 러시아 국가의 건설과 경제발전을 목표로 2002년 초에 ‘러시아 교육 현대화 구상’을 발표하면서 심화교육을 도입하고 기존의 11학년제를 12학년제로 바꾸고 대학입시제도를 ‘국가 공통시험’ 제도로 일원화하게 되었다. 오만석, 신현숙, “현대 러시아의 교육과정과 교과서 개혁정책”, 비교교육연구, 14권1호(2004), 185쪽.

철학, 경제학, 스포츠 등에서 교외활동을 제공하는 학교가 연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고학년 학생들은 대학에 준하는 교육기관의 아카데미 스텝에게서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구소련의 교육제도에서는 일반교육기관의 모든 학생들이 인문계열 혹은 이공계열 구분 없이 모국어, 수학, 역사, 지리, 화학, 물리, 생물 등 다양한 기본 교과들을 철저히 이수하도록 되어 있다. 2000년에 블로냐 선언이 채택되면서 2010년까지 러시아를 포함한 유럽지역에 단일고등교육제도를 수립하기로 되었다. 이에 발맞추어 러시아는 2000년부터 향후 10여년에 걸친 교육 현대화를 계획하며 개인, 사회, 국가의 당면한 요구와 장기적 발전에 기초해 교육의 질을 보장하며 교육구조 개혁과 교육내용 및 질을 향상시킬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일반교육, 인문사회, 인문언어, 자연과학, 물리수학, 공업 등의 전문화된 교육을 심화교육의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20세기 이후 러시아에서의 교양교육은 소비에트 시기와 그 이후로 나누어 살필 수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소비에트 시기 구소련의 학교는 교양교육을 강조하였고 집단주의 교육에 중점을 두었다. 이러한 집단주의 교육이 국가 이데올로기를 주입시키는 사상교육을 위주로 획일적 교육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은 사회의 가치와 일치되는 행동을 하도록 격려하고 구성원들로 하여금 친구들의 행동을 교정하도록 발전시키는 데 솔선수범하고, 책

임감을 가지도록 가르치는 데 성공적인 임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sup>6)</sup> 그런데 소비에트 정권이 붕괴되고 나서 몇몇 교육개혁자들은 소비에트 시기 이데올로기를 강요하는 교양교육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개인의 정신과 도덕관의 형성은 가족과 교회의 임무이므로 학교에서 '교양'의 역할을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에 따라 학교는 교양교육에 소홀하였고 학생들의 가치관이나 도덕성 함양에 적지 않은 문제를 야기시켰다.<sup>7)</sup> 따라서 러시아는 소비에트식의 교양교육과는 다른 방향의 교양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고 교육과정의 개혁을 통해 교양교육을 실행하고 있다. 교양교육에 대한 강조는 대학의 전유물이 아니라 전 교육과정에서 나타난다.

서두에서 잠시 언급했듯이 러시아 교양교육의 역사는 러시아의 역사적, 문화적인 맥락을 고려해 보았을 때 다른 나라 교양교육의 역사에 비해 짧다. 더군다나 러시아인들의 인식 속에는 대학 이전 교육과정에서 모든 교양교육을 이수하였기 때문에 대학에서는 전문인, 직업인이 되기 위한 전문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내재되어 있는 것 같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페테르부르크 국립대학은 미국의 바드 대학(Bard College)과 연합하여 스몰리니 대학(Smolny college)에서 '예술 및 인문학 프로그램'을 시작하였고 1999년도에 처음 입학생을 받기 시작하였다. 이후 2011년 페테르부르크 국립대학에 문리대학(College of Liberal arts and sciences)<sup>8)</sup>이 문을 열었다. 현재 500여명의 학생이 학부대학에 소속

6 유리 브론펜 브레너, 『브론펜브레너가 본 미국과 소련의 아이들』, 서울: 샘터사, 1991, 116쪽.

7 신현숙, "현대 러시아 교육의 변화와 문제점", 『중소연구』 26권2호, 2002, 105쪽.

8 페테르부르크대 문리대학의 주요한 내용들은 아래의 학부대학 홈페이지에서 참조하였음.

[http://artesliberales.spbu.ru/academics/katalog-kursov?ct=E&b\\_start:int=650&bm=bakalavr2015.05.15](http://artesliberales.spbu.ru/academics/katalog-kursov?ct=E&b_start:int=650&bm=bakalavr2015.05.15)

되어 있다. 학부생들은 재학 기간 중 바드 대학에서 3주간의 영어 교육을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한 학기 이상 교환학생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다. 졸업생들은 바드 대학과 페테르부르크 대학에서 동시에 학사 학위를 받을 수 있다. 문리대학의 교육과정 구성은 다음과 같다.

위의 교육 내용에서 주목할 점은 첫째, 공통과

표1 | 페테르부르크 대학 문리대학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

교육 과정	교과목
전공 과정	인지연구, 콤플렉스 시스템, 컴퓨터 과학과 인공지능, 경제학, 영화와 비디오, 이슬람 역사와 문화, 예술사, 문명사, 국제관계, 정치학과 인권, 생명과학, 문학, 음악과 연극, 철학, 사회학과 인류학(15개)
부전공 과정	미국 연구, 프랑스 연구, 젠더 연구, 인권, 종교 연구, 러시아, 소비에트 및 포스트 소비에트 연구(6개)
공통 과정	영어 16개 과목, 노동의 안전성, 정보 리터러시, 인문학의 논리와 방법론I, 인문학의 논리와 방법론II, 러시아어와 언어문학, 인문학 개론I(1학년 세미나), 인문학 개론II(1학년 세미나), 극한 상황에서의 인명과 지역 수호(24개)
기초 과정	191개 교과목
선택 과정	663개 교과목
교과목 누계	901개

출처 | 페테르부르크대 문리대학 홈페이지  
(<http://artesliberales.spbu.ru>)

정에서 영어와 기초학문, 특히 인문학 관련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다는 점이고 둘째, 이슬람 역사와 문화가 전공 과정으로 개설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는 학부대학을 후원하는 23개 단체 중 이슬람 문화, 과학, 교육 후원 기금과의 연관성을 유추하게 하는 대목이다.

학부생들은 매 학기 15학점을 이수할 수 있는데 만약 그 이상의 학점을 이수하고 싶은 경우에는 직전 학기 평점이 B<sup>+</sup> 이상이 되어야 한다. 학점은 전통적인 러시아 학점을 미국 및 유럽 시스템에 접목시켜 사용한다.

표2 | 러시아식 학점과 미국 및 유럽식 학점 비교

러시아식 학점	미국 및 유럽식 학점
최우수, 5점	A, A <sup>-</sup> , B <sup>+</sup>
우수, 4점	B, B <sup>-</sup> , C <sup>+</sup>
만족, 3점	C, C <sup>-</sup> , D
부족, 2점	F

러시아에서 문리대학의 출범은 전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교육 시스템의 변화<sup>9)</sup>를 반영하는 현상이라 말할 수 있다. 페레스트로이카 이후 러시아에 급격하게 불어 닥친 영어교육과 영어권 국가로의 유학 열풍, 더 나아가 문리학부의 탄생 등은 미국식의 성공 모델을 찾기 위한 러시아 정부의 노력을 보여준

9 급변하는 지식 사회에서 지식과 직업의 매칭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다. 대학교육을 받은 자의 70% 이하가 5년 이내 이직한다는 통계도 있다. *СвободныеискусстваинаукинасовременномэтапеопытиСШАиЕвропывконтекстероссийскогообразования*. СПб: СПбГУ, 2014, p. 5. 향후 지식인이 직업을 찾아 사회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직업의 기초능력(논리적 사고와 표현력, 정보수집 및 활용 능력, 새로운 지식 습득과 활용 능력 등)과 소양, 네트워킹 능력이 전문 지식보다 더 중요해지고 있다.

10 러시아 연방 교육부 장관은 예술과 인문학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페테르부르크 국립대 문리대학을 출범시켰다. 문리대 모델은 독일, 중국, 남아프리카 등의 교육체제를 연구하였고 한다. *СвободныеискусстваинаукинасовременномэтапеопытиСШАиЕвропывконтекстероссийскогообразования*. СПб: СПбГУ, 2014, pp.4-11.

다.<sup>10)</sup> 문리대학은 교육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교육 과정 설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중이다. 지식을 수용하는 능력이 아니라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창출하는 능력,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자신의 생각을 용기 있게 표현하는 능력, 민주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키우기 위해 문리대학은 간학문적인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학생들에게 자유로운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다.<sup>11)</sup> 문리대학 내에는 총 5개 과가 있는데 ① 언어와 문학 연계 학과, ② 예술 연구와 실습 연계 학과, ③ 자연과학 및 인문과학 간의 융합학과, ④ 인문, 사회 과학 내에서의 학제간 종합학과, ⑤ 예술 및 인문학 교수 이론과 교수법 학과 등이 있다. 이러한 과의 특징은 첫째, 인문학, 자연과학, 예술, 사회과학 등 기초학문 위주의 과를 간학문적으로 접근하려는 점이고 둘째, 교수법과 이론을 중시하여 하나의 독립된 과로 두고 있다는 점이다.

### Ⅲ. 나가며

현대사회를 교양교육의 위기의 시대라 말한다. 자본의 경쟁과 상업화의 물결이 거세지면서 자유경쟁의 논리가 모든 가치를 압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국가관리체제로서 공교육을 운영하는 일본에서도 대학의 교양교육은 점차 약화되고 대신에 단기적인 성공을 위해 기초가 되는 전문교육을 조기

에 시작하자는 자본화된 시장주의적 교육 편향이 대세라 한다. 이러한 교육은 성공을 위한 빠른 판단력을 요하지만 비판적 능력에는 약하다. 미래를 조망하는 통찰과 인간에 대한 깊은 성찰 대신에 처세술과 경쟁 전략만이 대우를 받고 있다.<sup>12)</sup>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의 교양교육은 시대와 사회를 올바르게 진단하고 미래를 조망하는 능력을 심어주어 전문지식에 방향성을 부여하여야 한다.

교양교육의 붐은 늦긴 하였지만 러시아에서도 20세기 후반부터 불기 시작하였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교양교육은 국가 주도의 사업이다. 러시아 교양교육의 성공 여부는 첫째, 교육과정의 설계에 있어 학생들에게 과목 혹은 과정 선택권을 부여하긴 하지만 학생들이 과연 그 선택권을 자신의 미래를 위해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어느 정도 지니고 있느냐 하는 점에 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러시아 학생들은 국가 주도의 교육 시스템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자기주도적으로 무언가를 하는 것이 그들에게 아직까지 낯선 일이기 때문이다. 결국 학생들의 선택능력, 혹은 더 나아가 자기주도 능력 배양 또한 교양교육의 몫으로 남게 된 셈이다. 교양교육을 잘 받은 학생들은 자신을 알고 자율적으로 자신의 발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러시아 교양교육의 성공은 국가가 어느 정도로, 또 언제까지 주도하여 교양교육을 설계해 나갈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국가가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교양교육에 대한 철학을 가지고 장기적인

11 학생들의 수업 설계와 선택권의 부여는 러시아 사회에서 획기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러시아에서는 대학생의 시간표를 학과 단위로 일률적으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모스크바 대학의 인문학부에서는 학년별로 학기마다 시간표가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다. 다만 특별 코스와 특별 세미나 등은 자신이 선택하여 들을 수 있다.

12 김성우, 최종덕, "대학교양교육의 위기와 인문학의 미래", 『시대와 철학』, 20권1호, 2009, 16쪽.

로드맵을 그린 후 치밀한 계획을 세워 교육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교양교육을 총괄할 기구가 러시아에도 필요해 보인다. 셋째, 러시아 교양교육만의 독자적인 발전모델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는 서구의 모델을 수용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러시아의 현실과 인문학적인 전통, 교육 여건을 고려한 교양교

육과정 설계와 전담 교육기구 설립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교양교육은 유럽의 전통을 이어받은 러시아의 교양교육의 인문전통과 인문학 연구방법론을 주목하여 한국만의 독자적인 인문 교양교육 모델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조혜경 대구대학교 교수

고려대학교 노어노문학과, 고려대 대학원 노어노문학과에서 석사를 취득하고, 모스크바 국립대 대학원에서 문학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고려대, 경희대, 상명대, 단국대 등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하였고 고려대 러시아-CIS 연구소에서 연구교수를 지냈으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교양기초교육원 사무국장을 역임하였다. 현재 대구대학교 기초교육대학 창조융합학부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 및 논문으로는 『도스토예프스키 소설에 나타난 리터러시와 비블리오테라피』, 『톨스토이, 시각을 탐하다』 등이 있으며, “꿈의 로고스에 대한 작가적 기획”, “나폴레옹 탈신화의 메커니즘”, “나를 찾아 헤매는 호모비블로스의 비극” 외 다수가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대학교양교육, 인문학, 고전문학과 현대문화, 러시아 문학과 문화 등이다.